

입 장 문

우리 연극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다운 소통을 원한다!

■ 최초로 본 사업추진이 알려진 것은 2022년 2월 24일(목) 간담회가 그 시작이며, 특히 코로나 19로 혼란한 가운데 일부 인사들만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전 연극계 대상 소통의 자리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곧이어 5월 25일(수) 마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추최, 한국연극협회(이하 한협) 주관 설명회에서 용산구 청파로373(현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이 전 연극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민간자본 약1,244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내부에 극장 5개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는 내용이었다.

○ 문체부가 2013년 실시했다고 하는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당시 한국관광개발기금(이후 관광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관광, 복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한 연구였으며, 본 연구 자료에서 연구자들은 '본 보고서는 서계동 국립극단의 공식 입장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것은 이미 문체부가 현장 혹은 국립극단이 납득 못하는 방향성으로 용역발주했다는 반증이며, 이 과정에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 관광기금 지원 불가 확정 이후 문체부는 현 부지의 사용 및 활용에 있어 관광(경제)이 아닌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2013년에 발행된 연구 보고서 내용으로 현재까지 진행, 2022년도에 공연장을 건립하면서 동시대가 요구하는 상징성 및 미래지향적인 공연장의 형태를 전혀 담을 수 없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문체부의 5월25일(수)을 기점으로 무용계, 음악계 등 타 장르와의 잇단 간담회를 개최해 마치 연극계가 장르 이기주의를 외치는 듯 갈등을 조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국립중앙극장의 초석으로서 그 역사를 같이하며 1950년 발족한 국립극단이 2010년 재단법인으로서 남산 국립중앙극장을 내려와 서계동에 자리 잡기까지의 역사를 모르는 타 장르와의 갈등 요소 제공은 공연예술계의 건강한 상생과 융합예술로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현장의 질서를 문체부 스스로 파괴했다 말할 수 있겠다. (※참조 : 첨부2_국립극단+국립극장 역사)

■ 이에 5월 25일(수) 한협과 문체부가 함께 조성한 설명회 이후 문체부의 특별한 조치 없는 상황에 반발하여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공연예술인노조 등은 잇단 성명을 발표했으며, 한국연극협회에서는 6월 13일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하기에 나섰다. (※참조_첨부1_비대위 명단)

■ 문체부는 비대위에 6월 24일(금) 4시 재차 공청회를 열겠다고 제시했으나, 비대위는 5월25일(수)과 큰 차이 없는 공청회의 개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6.24) 3~4시 연극인들과 함께 항의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 또한 6월 27일(월) 2시~4시, 비대위 주최의 연극인 대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 수렴한 후, 문체부와 대화를 시도하겠다.1 -

1. 문체부는 연극계에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2010년, 국립극단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구어 놓은 남산 국립중앙극장을 뒤로하고 환골탈태를 위해 재단법인화와 단원 해체를 강행하며 스스로 팔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서계동으로 왔다. 당시 문체부는 국립극단의 해체와 재단법인화의 수순 속에서 현장 연극인들에게 국립극단 전용 극장의 꿈을 심어 준 바 있다. 비록 현재는 가건물의 모습이며 외부의 소음이 간섭되는 공연장이지만 아시아 최초의 국립중앙극장을 포기한 채 서계동으로 발길을 옮겼던 연극계에 문체부는 책임 있는 답을 주어야 한다.

1. 전문성이 결여된 복합문화공간을 반대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목적 수단의 공연장은 동시대적 사고라 할 수 없다. 2010년 국립극단은 자기 팔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단원제 등을 폐지하고 재단법인의 모습으로 남산 국립중앙극장에서 이곳으로 왔으며 블랙리스트, 미투 등 동시대적 난제 속에서도 깨어있고자 노력하면서 관객이 인정하는 공연(유료 객석 점유율 70%)으로 진정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극단이 되고자 진보하고 있다. 심지어 2011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연구소를 설립하고 청소년과 영유아들을 위한 작품개발 방법을 연구해 내는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각도의 창제작 개발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성과는 그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1. 일방적인 설명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부 연극인과 진행한 2월 24일(목) 간담회 그리고 5월 25일(수) 설명회까지 문체부는 사업 설명회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소통구조가 아니다. 총사업비 1,244억 원이라는 턱 없는 예산으로 전국 어디에나 있는 비슷비슷한 복합문화시설을 또 지을 것인가. 문체부는 2013년부터 2022년 8년 동안 현장과 어떤 소통도 없이 자체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제야 바빠 설명회를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동시대적 화두로 예술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들썩이고 있는 변화의 가운데 전문성과 정체성 없는 지금의 전형적 건축사업계획은 신뢰하기 어렵다. 문체부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찾고 현장을 마주해야 한다.

[첨부]

1. 한국연극협회 비대위 명단.....(3p)
2. 국립극단+국립극장의 역사.....(4~6p)
3. 국립극단 부지 공연장 조성 관련 소통과정.....(7~8p)
4. 연극인 대토론회 홍보물.....(9p)
 ⇨ 원본이미지 : 웹하드 ID assitej1 PW 1004) '6.27 연극인 대토론회'
5. 연극계 성명서 통합_총 7건(5.31~현재까지, 날짜 순).....(10~19p)
 ※서울연극협회(5.31), 공연예술인노조(6.9), 한국연출가협회(6.10), 한협 비대위(6.16), 한국극작가협회(6.16), 아시테지코리아(6.18), 한국연극평론가협회·한국연극학회·한국극영화학회·한국연극예술학회(6.21)
6. 한국연극협회 전국 지회 언론보도현황(일부).....(19p)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첨부1】 한국연극협회 비대위 명단

비상대책위원회 (9명)

방지영(아시테지코리아 이사장), 부위원장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신택기(한국연극협회 이사),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훈경(한국연극협회 이사), 윤진영(대전연극협회 회장), 전명수(울산연극협회 회장), 장은수(월간 한국연극 편집위원장), 정상철(전 국립극단 단장)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 (15명)

권성덕(전 국립극단 단장), 김미혜(원로 평론), 김윤철(전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우옥(전 연극원 원장, 전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김경옥(대한민국예술원), 노경식(원로 극작가), 박 웅(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손진책(전 국립극단 예술감독), 오현경(대한민국예술원), 오영수(전 국립극단 단원), 윤대성(대한민국예술원, 전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 정진수(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정중현(전 월간 한국연극 편집위원, 현 생활연극협회 이사장), 최종원(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허순자(전 평론가 협회 회장, 현 국립극단 자문위원)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첨부2】국립극장+ 국립극단의 역사 (※ 국립극장 홈페이지 발취)

○ 국립극장의 탄생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모국어를 되찾게 된 연극인들은 열악했던 예술 활동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국립극장 설립운동을 전개한다. 당시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극장의 영화관화 등의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국립극장 설립에 대한 예술인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열정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같은 해 8월 국립극장 창설에 대한 대통령령 공포로 이어진다.

1949년10월21일 국립극장 운영위원회가 조직되고 초대극장장에 유치진(柳致眞, 1905-1974)이 임명 된다. 국립극장의 장소는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 건물)으로 정해 지고, 1950년 1월 극장의 직속 협의기구인 <신극협의회> 를 설치, 산하에 '신헌'과 '극협'이라는 두 극단을 창단하였다.

국립극장은 민족연극예술의 정립과 창조라는 가치에 맞춰 개관 기념공연으로 역사극 <원술량>(유치진 작)을 올린다. 이 공연은 초연 당시 약 5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여 신극 사상 최대 관객동원 이란 기록을 남기게 되며, 연이어 올라간 제2회 공연 <뇌우>(조우 작)는 무려 7만5천여 명의 관객 을 모아 개관공연<원술량>의 기록을 갱신하였다. 당시 서울시민이 40만 명 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대단한 흥행기록이었다. 연장공연까지 이어진 <뇌우>공연에 이어 국립극장은 제3회 공연<청춘의 윤리>를 준비하던 중 6.25전쟁을 맞이하면서 국립극장은 개관 57일만에 문을 닫게 된다.

○ 6.25 피난 시절 대구 국립극장 시대(1953. 2~1957. 5)

6.25전쟁으로 국립극장의 기능은 전면 마비되고 예술가들은 피난길에 오른다. 많은 공연예술가들이 피랍 또는 월북함으로써 모처럼 피어나려던 극장예술의 꽃봉오리는 된서리를 맞은 듯 한순간 흩어 진다. 부산과 대구로 피난 온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러나 예술가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들은 대구문화극장(이후 키네마극장)을 기반으로 공연활동을 벌였고, 공연장은 초만원에 이를 만큼 대성 황이었다. 그러다 1952년 5월 국립극장은 재건을 위한 재정 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서 대구문화극장을 국립극장 건물로 사용했다. 제2대 국립극장장으로 연극인 서항석(徐恒錫, 1900-1985)이 임명됐다. 그는 국립극장에 대한 모함과 공격으로 극장 폐지론이 나왔을 때, 국회에 나가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명연설을 해 이를 저지함으로써 극장을 존속시켰다. 대구 시절 국립극장 은 전속극단을 두지 않았지만 개관 당시 활동했던 극단 신헌 단원들을 중심으로 위문공연 등을 통 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서울로 환도한 국립극장

1953년 휴전으로 정부가 환도한 후에도 국립극장은 그대로 대구에 남아있었다. 국립극장이 개관 당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시 사용했던 부민관 건물은 국회가 폭격 맞은 것을 개수해 사용하고 있었고, 명동의 시공관(市公館)은 서울시가 계속 사용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형편은 못했다. 극장장 서항석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를 움직여 1957년 1월5일 정부 요리에 국립극장 환도 추진 건의문을 제출하자, 문교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환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난제였던 극장 문제는 결국 시공관 건물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957년 6월1일 국립극장은 서울로 환도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국립극장은 명동의 시공관에 동지를 틀고 개관하게 됐다. 대구에 있는 동안 전속극단이 없었던 국립극장은 극단 <신협>단원을 중심으로 다시 국립극단 전속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원 대부분이 이탈하는 사건을 맞이하는데 당시 세계 연극계의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초대극장장 유지진이 본인이 한국에 없는 사이 <신협>이 국립극장의 전속극단이 된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신협> 복원을 명한 것이다. 국립극장은 잔류한 <신협>단원과 기존의 단원들을 중심으로 1년여의 공연활동을 이어가다 다시 전속극단을 재구성하는 시도가 이뤄진다. 그리하여 국립극장은 두 개의 전속단체(신협과 민극)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 명동 국립극장과 전속단체 창단

시공관(현 명동예술극장)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국립극장은 1961년 11월 서울시민회관이 개관됨으로써 시공관을 극장전용 건물로 사용하게 된다. 총공사비 약 1억 8천만 원을 들여 내부 시설을 전면 개수하고 1962년 3월 새롭게 단장하여 명동 국립극장의 개관식을 갖는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1,000석 이상의 객석을 800여석으로 축소하고 무대를 이전보다 3분의 1 확장 하는 한편 오케스트라 박스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회전식 무대, 자동 조명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술극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개관식에 맞춰 전속단체로 활동해오던 극단 신협과 민극은 재편성되어 <국립극단>이란 명칭으로 발족하고, 국립극단(국립창극단의 전신),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이 새로이 창단된다. 더불어 1969년 국립극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의 필요성으로 기존의 'KBS교향악단'의 명맥을 그대로 인수, 그 운영권을 이어받게 된다. 'KBS교향악단'은 3관 편성 90여명의 단원으로 <국립교향악단(악칭, 국향)>으로 개칭하여 소속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 국립극장 남산시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는 남산을 중심으로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국립극장을 비롯하여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양성소, 예총회관, 국립중앙도서관, 현대미술관, 세종대왕기념관 등이 착공될 예정이었다. 가장 먼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양성소(국립국악고등학교 전신)가 1967년 12월 준공됐다. 이 건물은 이후 국립극장 별관으로 되어 현재 별오름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3년 8월 국립극장이 완성되면서 바야흐로 남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남산의 국립극장 대극장은 명동의 구 국립극장의 무대보다 8배나 넓은 약 1300㎡의 규모와 회전무대, 좌우 이동 무대 등 당시 최첨단의 무대 시설을 갖춘 매머드급 예술극장이었다. 1973년 5월 국립합창단이 전속단체로 창설되고, 국립무용단은 이분화되어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으로 나뉜다. 또한 1972년 국고보조단체로 인수한 예그린예술단은 <국립가무단>으로 개칭됐다. 명동의 구 국립극장은 낙찰이 안돼 당분간 예술극장으로 사용됐다. 이 시기 국립극장 산하에는 최대 8개의 전속단체가 운영되다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가 1977년 10월 국립가무단이 <시립가무단>으로 이관되고, 1981년 8월 국립교향악단이 한국방송공사(KBS)로 다시 운영권이 이관됐다. 1995년 국립관현악단이 창단되어 국립극장은 총 7개 전속단체를 운영했다. 1999년 1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5711호)됨에 따라 국립극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이 된다.

전속단체로 있던 국립발레단과 오페라단, 합창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고 4개 단체(국립극단·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가 국립극장 소속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 4월 30일 국립극단도 법인화됐다. 이후 국립극장은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단체를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연예술 전속단체를 보유했음에도 한동안 제작극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국립극장은 2012년 9월 큰 도전을 감행한다. 전속단체 자체 공연으로 무대를 채우고, 그 공연 라인업과 티켓을 미리 공개하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도입한 것이다. 시즌제 도입 이후 국립극장은 전속단체 작품 수, 관람객 수 및 객석점유율 등 공연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뤄냈다.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첨부3】 국립극단 부지 공연장 조성 관련 소통과정

국립극단 부지 공연장 조성 관련 소통과정

| 일정 | 세부내용 | 비고 |
|-------|---|----|
| 2.24. | <p>■ 국립극단, 서계동 건설 관련 연극계 간담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문체부 ○주관 국립극단 ○참석 : 문체부 5인, 국립극단 2인, 연극계 인사 6인 (당일 불참 5인) ○내용 :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무관의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전원 서계동은 국립극단 전용공간이어야 함 주장 - 연극계 숙원인 어린이청소년 전용극장 필요성 주장 | |
| 3.30 | <p>■ 국립극단, 연극인의 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문체부 예술정책국장, 국립극단 예술감독 ○내용 : <2.24 연극계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 재처리, 문체부에 전달 서계동은 국립극단 전용공간이어야 한다 /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BTL방식에 대한 연극계의 우려 사항 / 건물 설계 시 문체부, 국립극단, 설계사 공동으로 검토-논의-협의할 수 있는 체제 필요 / 어린이청소년극장 확보 및 분리 독립 필요 등 | |
| 5. 2. | <p>■ 국립극단, 한국연극협회(이하 한협) 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국립극단 예술감독, 한협 이사장 ○내용 : - 지난 2월 24일 연극계 3인(초대인원 5인중 2인 불참)을 초대해 문체부.국립극단 상호간의 차담회 가졌다는 사실 한협에게 전달. - 한협은 공청회를 통해 연극계 전체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 전달 | |
| 5. 3. | <p>■ 문체부, 한협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문체부 2인, 한협 3인 ○내용 : -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 본 사업에 대해 연극인의 이해와 함께 입장 확인 필요 - 한협에서 주도적으로 설명회 준비 및 의견 취합 역할 해 주길 요청 | |
| 5.25. | <p>■ 문체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계획」 설명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문체부 ○주관 한협 ○협조 국립극단 ○참석 : 문체부 4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인, 국립극단 10인, 현장연극인 30여명 ○내용 : -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연구원의 설명 - 현장연극인들의 다양한, 강력한, 격앙된 우려 사항 논의 - 향후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한협에서 일임하는 것으로 협의 | |
| 5.31. | <p>■ 서울연극협회, 복합공연장 조성 반대 성명서 발표</p> | |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 | | |
|-------|---|--|
| 6. 3. | <p>■ 한협, 문체부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 문체부 2인, 한협 4인 ○내용 : - 설명회 이후 문체부와 한협의 입장 논의 - 대학로 현장 연극인들의 분위기 전달 | |
| 6. 6. | <p>■ 서울연극협회, 공청회 개최</p> | |
| 6. 9. | <p>■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p> | |
| 6.10. | <p>■ (사)한국연출가협회, 성명서 발표</p> <p>■ 한협, 온라인 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 동의 및 긴급 이사회 개최 결정</p> | |
| 6.13. | <p>■ 한협, 온라인 긴급 이사회 개최</p> | |
| 6.14. | <p>■ 한협, 비대위 1차 회의 진행 및 성명서 발표 확정</p> <p>■ 전국 한국연극협회 지회, 협단체 잇단 성명서 발표</p> | |
| 6.24 | <p>■ 연극인 문체부 항의 방문</p> | |
| 6.27 | <p>■ 연극인 대토론회</p> | |

【첨부4】 연극인 대토론회 홍보물

원본 : 웹하드 ID assitej1 PW 1004) '6.27 연극인 대토론회'

6.27 연극인 대토론회

**창작실험의 상실,
서계동 국립극단 연극 전용극장이 사라진다**

현 국립극단 부지에 조성되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두고 현 사태를 진단하고 국립극단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극장의 향후 방향 및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2.06.27.(월) 14:00~16:00
- 장소 : 국립극단 소극장 판
- 방식 : 오프라인 대면 토론회 + 한국연극협회 Facebook 라이브 생중계
- 주최·주관 :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립극단
- 문의 : 02-744-8055 (한국연극협회)

1부. 경과보고 30min

사회_오현실(국립극단 사무국장)

- 손정우(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김광보(국립극단 예술감독)
- 방지영(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부. 지정발제 30min

사회_이지수(연극연출가, 극단 연희공방)

1.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진단
김효정(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前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2. 해외 사례를 통해 보는 국립 공공극장의 개념
조만수(연극평론가, 충북대학교 교수)
3. 국립 공공극장의 위상, 국립극단의 위상
김육란(연극평론가, 국립극단 70년사 집필진)

3부. 종합토론 60min

사회_정안나(연극연출가, 극단 수수파소리)

- 참여자 중심으로 자유토론 진행
- 사회적 진행에 따라 토론안건 및 결과도출

토론회에 앞서
사전 질문과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5】 연극계 성명서 통합_ 총 7건

① 서울연극협회(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비대위 성명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연극협회 성명서
문체부는 사업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연극협회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3월부터 시작되어 9년째 추진 중인 본 사업에서 예술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현 국립극단 부지를 활용하여 민간기금으로 조성되는 본 사업은 건립 취지,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서울연극협회는 불통으로 일관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예술계 전체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규정한다.

국립극단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말라!!!

한 나라의 국립극단은 정부의 공공예술정책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의 상징성과 큰 의미를 지닌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극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문체부의 태도는 연극계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는 공공예술정책의 표류를 낳을 것이며 연극계 전반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문체부는 상생의 모델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후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공공극장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달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공극장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장기적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예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장기적 계획이나 공공극장의 역할과 기능 등 무엇을 정립했는가? 이러한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4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실질적 주체가 될 현장 예술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예술을 자본에 종속시키지 말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고가 아닌 전액 민간기금으로 건립 후 정부가 2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타 사회기반시설과 달리 예술 공간은 사회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자본의 종속에서 벗어나 존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기금을 활용한 방식은 '수익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공공극장으로써의 역할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예술 본위의 극장, 예술가가 주도하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공공극장을 본다면 그 미래를 알 수 있다.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연극협회는 문체부에 요구한다!!!

1.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 즉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온전한 공공극장을 추진하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서울연극협회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은 불통으로 일관한 문체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연극협회는 모든 연극계 협, 단체와 연극인의 연대를 요청합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날짜 : 2022년 6월 6일 저녁 6시

장소 : 스튜디오76 소극장

모든 연극인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공청회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오픈채팅방 "서협 공청회"를 검색하시면 자유롭게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방울로 돌이 깨지지 않는다면 파도로 돌을 옮겨보겠습니다.

모여주십시오!!! 말씀해주십시오!!!

2022년 5월 31일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②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사자 논의 없는 일방적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과 국립극단의 이전 계획을 규탄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5일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에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현장예술인들과의 공청회를 연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문체부는 현재 서계동의 국립극단 자리에 200세대 행복주택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1,200석, 500석, 300석, 200석, 100석의 극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업이 BTL(임대형 민자사업, 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진행되고 5월말에 사업자 신청을 끝내고 6월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예술인들은 이런 일방적인 문체부의 통보뿐만 아니라 사업 설명회에 분노했다.

1. 기초예술의 공익성과 공공성, 상징성을 가진 연극예술을 자본에 종속시키지 말라!

연극인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문체부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문화예술계와 연극인은 분노한다. 연극인들은 문체부에서 타부처와 협약까지 맺어가며 2014년부터 계획한 이 사업이 왜 한 번도 현장예술인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극단은 이명박 정부(문체부장관 유인촌) 시절 장충동의 국립극장에서 국립극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2010) 하면서 극단원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지금의 서계동(당시 기무사 수송대)의 가건물로 옮겨졌다. 이후 10여년을 리모델링 된 공간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사육을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가건물 같은 공연공간을 다양한 실험과 뛰어난 작품을 제작하며 언젠가 국립극단에 걸맞는 연극전용극장, 어린이 청소년 전용극장이 생길것이란 희망으로 연극을 지켜왔다.

이제 도시 재개발과 맞추어 새로운 국립극단에 맞는 극장을 짓겠다고 한다면 목적과 용도에 따른 극장 건축을 위해 현장예술인들과 여러 논의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서 이를 대한민국 연극을 대표하는 국립극단과 현장연극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립극단을 현장예술인들과는 무관한 예술단체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국립극단의 공공성에 대한 현장 예술인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2. 공공성보다 민간사업자의 기대수익 보장하는 BTL방식 거부한다!

민간사업자 배불리고 예술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만 취급하게 될 BTL방식 거부한다. 국립극단이라는 공공의 예술영역이 민간으로 왜 이전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공공예술, 특히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분야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할 영역이다.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그런데 이를 민간에 넘기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공공예술의 영역을 모두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지역에 새로운 국립극단 건립에 대한 요구도 모두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있다면 국가는 그 주체인 예술가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문체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에 사업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 못해 우습기까지 하다.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천억이 들어간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국립극단의 극장을 짓는 돈 1300억이 없어서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3. 국립극단의 상징성과 정책적 철학, 방향성의 부재에 분노한다!

이번 계획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립극단에 대한 계획과 철학, 방향성, 전망의 부재이다. 문체부는 새로 만들어질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의 극장 중에 300석과 200석의 극장에 국립극단이 들어와서 쓰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립극단이라는 국가의 연극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무책임한 발상이라 여겨지며, 특히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비전문적 발상으로 일관한다. 마치 현재 장충동 국립극장이 박정희 정부 시절 졸속으로 지어지게 된 것과 같은 기시감이 든다. 어떤 쓰임이 가능한 극장이 들어서게 될지 전혀 소통이 없는 속에서 단지 객석 수 규모만을 놓고서 국립이라는 이름의 극단을 복합문화공간의 한곳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졸속 행정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1500석의 객석은 뮤지컬에 500석은 다른 장르를 고려하겠다고 한다. 국립극단의 자리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장르를 배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에는 기존에 그 자리를 지켜왔던 국립극단에 대한 존중도 없이 다른 장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 계획은 처음부터 공공예술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서계동이라는 금싸라기 땅에 수익성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민영화 대세론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문체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예술의 영역에 대한 무지와 현장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무시한 촌극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새로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추어 공공예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현장의 예술인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업공모한 서계동 사업자선정을 멈추라.
2. 국립극단과 현장연극인들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테이블을 만들라.
3. 국립의 상징성과 정책적 철학, 방향성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장기적 계획마련을 촉구한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에 대하여 (사)한국연극협회, (사)서울연극협회는 물론 관련 협,단체 및 현장의 연극인들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해 갈 것이다.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022년 6월 9일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③ 한국연출가협회 성명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성명서

선진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연극인이라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날 우리 연극인이 처한 각박한 현실이다.

나아가 2년 간의 긴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현장의 연극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연극의 암흑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연극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듯 아프고, 병 들어가는 현장 연극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 연극의 대표성을 가진 국립극단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원말이나!

국립 극단은 한국 연극 100년 동안 고집스레 현장을 지켜온 수 많은 연극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담고 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립 극단이 들어선 부지를 허물고 민간자본을 앞세운 BTL 개발로 1,200석 뮤지컬 전용극장만 건립할 경우 연극계의 반발을 우려한 듯 300석, 500석 짜리 연극전용극장을 끼워넣기식으로 사실상 뮤지컬 전용극장을 들여 앉히려는 알뜰한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국립 극단 위상에 대한 문체부의 저급한 인식의 발로이며, 대한민국 연극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굳이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고 싶으면 다른 공간에다 지어라!

연극의 공간을 강제적으로 침탈하여 엉뚱한 짓을 벌일 경우 연극인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원천 무효가 될 때 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연극계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개발 사업을 원천 백지화 하라!!
2.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라!!

2022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④ 한국연극협회 비대위 성명서

전국 연극인들은 멀티플렉스 상연관으로 내몰리는 정체성 없는 국립공연장을 거부한다! 문체부는 즉시 응답하라!

우리 연극인들은 2014년 세계동 복합문화공간 계획 이래 2022년 5월까지 현장 예술인에게 침묵한 문체부의 과묵함에 존경을 표하며, 예술인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는 민자 유치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여러 주체들의 공동된 의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 할 것이다.

철학이 부재한 공간은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다.
세계동 자리는 2010년부터 국립극단이 맨 바닥부터 깔고 닦아 온 터전이다. 장충동에서 내려와 일구어놓은 매년 행렬의 관객과의 교감은 우수한 창제작 작품개발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했다. 철학이 부재한 시멘트덩어리가 그동안 이룩한 정신을 모두 파괴할 뿐이다.

멀티플렉스 공연장은 시대역행의 상징일 뿐이다.
전국에는 크고 멋진 웅장함을 자랑하는 공연장들이 수도룩하게 있고, 대부분이 복합문화공간이다. 어떤 장르 공연예술가에게 물어봐도 전형적 공간이다. 수지를 먼저 논하는 곳에 문화는 생성되지 않으며, 예술은 그런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진정한 국민의 예술향유가 발생하는 공간성에 대해서 자각해야 한다. 동시대적 사고와 미래를 여는 예술적 상상력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면 예술가도 관객도 이곳에서 치유될 수 없다.

문체부는 잊지말라! 예술가는 정책집행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의 주체임!!
문체부는 멈춰라! 세계동 복합문화공간 관련 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일체의 진행을!!
문체부는 위의 요구에 대해 6월 21일 오후 12시 까지 반드시 응답하라!!

2021.06.16.
한국연극협회 범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9) 위원장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부위원장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신태기(한협 이사),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훈경(한협 이사), 윤진영(대전연극협회 회장), 장은수(평론, 월간한국연극 편집위원), 전명수(울산연극협회 회장), 정상철(전 국립극단 단장)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15) 권성덕(전 국립극단 단장), 김미혜(원로 평론), 김윤철(전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우욱(전 연극원 원장, 전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김경욱(대한민국예술원), 노경식(원로 극작가), 박 웅(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손진책(전 국립극단 예술감독), 오현경(대한민국예술원), 오영수(전 국립극단 단원), 윤대성(대한민국예술원, 전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 정진수(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정중현(전 월간 한국연극 편집위원, 현 생활연극협회 이사장), 최종원(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허순자(전 평론가 협회 회장, 현 국립극단 자문위원)

(사)한국연극협회 16개 지회 (강원도연극협회, 경기도연극협회, 경상남도연극협회, 경상북도연극협회, 광주연극협회, 대구연극협회, 대전연극협회, 부산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울산연극협회, 인천연극협회, 전라남도연극협회,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라북도연극협회, 제주연극협회, 충청남도연극협회, 충청북도연극협회) (사)아시테지코리아(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사)한국극작가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한국연출가협회, (사)한국여성연극협회, (사)한국연극평론가협회, (사)한국연기예술학회_10개 단체

⑤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성명서

예술의 향기를 지워버린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반대한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려 한다는 발표를 들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예술인들과 그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야 통보처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모든 연극인들은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예술 하나만으로는 그 공간을 채우기 싫은가! 국립극단을 상주시키고 국격에 맞는 공연들을 올리 기엔 그 공간이 그렇게 아까운가! 기초 예술의 발전 없이 어찌 한류 문화 콘텐츠의 성공만을 감나 무 아래서 기다리는가! 이제라도 건립 논의를 시작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이다! 그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상업 공간 건립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 극작가들은 문화와 공연과 예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문체부여 각성하라!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다!
문체부는 당장 상업공간으로의 변질을 멈춰라!
세계동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을 다시 재논의하라!

2022년 6월 16일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⑥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코리아) 입장문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연극의 대표성을 가진
정체성 있는 국립 공공극장의 건립을 요구한다!

아시테지코리아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연극협회 범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적극 동의를 표한다. 지금이라도 국립공연장의 건립은 연극인들이 정책결정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극장이 존재하는 이유와 방향성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나라의 수준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국연극 100년 넘게 지켜온, 연극인들의 역사가 담긴 국립 극단 부지, 이곳에는 어떤 것을 담아내야 하는지, 지난 15일 문체부의 설명에 의하면 12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과연 적정한지를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과 내년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청소년극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재조명하는 국립극단 산하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과업 또한 잊지말아야 한다.

최근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아시테지코리아와 협조하며 <우리에게 왜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이 필요한가?>라는 어린이날 100주년 포럼을 개최, 세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공연장 조성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귀 기울여 미래유산이 될 국립다운 공연장 건립의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주길 기대한다. 이에 발맞추어 2011년에 출범하여 10여년이 지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또한 그 역할을 확대하여 독립된 기구로 마땅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공극장의 역할과 의미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국립의 상징적 가치와 위상을 세워 갈 수 있는, 진정한 국립공연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공공극장의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2년 6월 18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ASSITEJ Korea)

⑦ 한국연극평론가협회·한국연극학회·한국드라마학회·한국연극예술학회 성명서

<세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이 은폐한 우리 시대의 문제>

연극은 대표적인 기초예술이다. 물질중심적 가치관과 대중예술의 높은 파고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기초예술의 도저한 흐름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전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린 유명 배우들의 예술적 젓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배우적 역량을 잉태시킨 것은 어떤 기초예술인가? 오늘 한국의 대중예술이 이처럼 꽃피게 된 것은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수 많은 기초예술인들의 땀과 눈물 덕택이다.

연극예술을 통해 인문학적 사유의 힘을 전개하고 확인하는 우리 연극인문학자들은 문체부가 의도하고 실행하려는 작금의 문화예술 정책 속에 숨겨진 저급한 예술관과 가치관을 목격하고 실망과 분노를 넘어 처연함과 참담함을 견딜 수 없다.

기초예술과 기초학문의 필요성을 그저 천박하고 경박한 돈의 논리만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환금성으로만 재단하는 이 무지하고 구제불가한 정책입안자들은 정녕 사유와 교양의 결핍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삶이 투쟁에 다름 아닌 이 삭막하고 황폐한 시대에 예술을 통해 삶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금력과 권력의 폭력에만 지배당하는 왜소하고 초라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문체부의 복합문화공간 지배 구상은 바로 이 금력과 권력의 논리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추종이다. 예술의 이름으로 예술을 옥죄는 실로 가공할 자본의 권위에 스스로 중독된 것이다. 그 중독의 폐해를 자칭 선진국이라 주장하는 나라의 문화예술 담당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도 출세를 위해 맹목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복무하고 있는 것일까? 한 나라의 기초예술을 예술 담당부처가 목조르는 이 혹독한 겨울공화국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높은 상징성과 비유성, 그것이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짐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생한 현장감은 그 어떤 예술 장르도 넘볼 수 없는 연극예술 고유의 능력이자 권리이고 의무이다. 이러한 예술적 역량이 발휘되고 촉진되기 위해서는 연극예술 특유의 공간에 대한 사유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연극이 전제로 하는 사유와 상상력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연극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공간이자 동시에 수용하는 관객의 공간이기도 하다. 번잡하고 소모적인 이윤창출의 공간이 아니라, 깊은 사유로의 침잠과 동시에 용솟음치는 몸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공간이다. 연극예술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 독특한 공간은 상업주의적 공간 분할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기능적으로 분배되고 배당된 공간에서 다급하게 훈육과 성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연극예술은 결코 성숙할 수 없다.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지배를 조장하고 획책하는 소모적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생애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연극예술은 비로소 제 존재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연극예술이 확립한 이 숙명적 공간관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예술정책은 결국 연극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은 예술가들을 예술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시킨다. 예술 장르들간에 벌어질 대립과 갈등과 암투를 조장하고 방조하면서 공간배당의 권력을 틀어쥐려는 문체부의 오만과 독선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마치 예술 생산의 주체가 문체부인양 예술가들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치부한다. 권력과 금력의 힘으로 문체부 스스로 예술에게 정치의 시녀 되기를 강요한다.

예술가를 그저 힘없는 사회적 약자이자 시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이 몰취미와 무교양의 시대를 교정하려는 연극인들의 심 없는 노력을 우리 학자들은 한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부단히 지지한다. 예술이 구현하는 철학 앞에서 수치심도 없이 등을 돌리는 문체부의 예술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기초예술의 큰 짐을 형벌처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수 많은 연극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들이 창조하는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은 비로소 구원받고 위로받고 활력을 얻어, 마침내 이 천박한 자본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6월 21일

한국연극평론가협회·한국연극학회·한국드라마학회·한국연극예술학회 회원 일동

【첨부6】 한국연극협회 전국 지회 언론보도 현황(일부)

- ①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168>
- ②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19769>
- ③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31>
- ④ 제주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891>
- ⑤ 대전중도일보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20622010005132>